

# 광주 미술 '예술의 중심' 파리 수놓다



20일 '문화도시 광주'전 '바람이 분다'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 씨떼 인터내셔널 데자르를 찾은 프랑스 관람객들이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 광주시립미술관 국제교류전 '문화도시 광주'전 '바람이 분다'

강렬한 색감이 인상적인 전현숙 작가의 과장된 인물화, 관조하는 느낌의 한부철 작가의 수채화, 도회적 풍경을 담아낸 조근호 작가의 작품...

광주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세계적인 예술도시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 미술인들의 작품과 함께 관람객들을 만났다.

지난 20일(파리 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세느강변에 자리한 씨떼 인터내셔널 데자르(파리 국제 예술공동체) 전시장에는 개성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관람하려는 현지인과 교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번 전시에는 광주 작가 7명과 파리 작가 7명 등 14명이 참여해 회화, 영상, 설치, 사진 등 모두 40여점을 선보인 프로젝트로 광주와 파리 미술교류의 의미있는 행보였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과 '르 제니 드 라 바스티'(회장 다니엘 루와젤)가 공동 주관한 '문화도시 광주'전 '바람이 분다' (17일~28일) 개막식이 20일 현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는 강남구, 김단비, 양나희, 전현숙, 정선휘, 조근호, 한부철 작가가 참여해 '공간·생명력' 등 자신의 대표작을 선보였다. '르 제니 드 라 바스티' 소속은

**양도시 작가 7명씩 참여**  
**28일까지 40여점 선 보여**  
**'르 제니 드 라...' 공동주관**  
**20일 100여명 참석 개막식**

로는 다니엘 루와젤, 폴 루잔, 이은영, 나드야 베르토, 이스트반 나기, 데니스 베르니에르, 타니 그라스 등 7명이 참여했다. '문화도시 광주'전은 광주의 미술문화 및 작가들을 해외에 홍보하고 지원하는 국제 교류전으로 지난 2012년부터 중국 북경과 광주, 일본 요코하마, 대만, 태국 등에서 매년 전시회를 개최해왔다.

공동주관 단체 '르 제니 드 라 바스티'는 1984년 설립된 프랑스 문화부 인정 공익단체로 현대미술 분야 조형예술가 90여명이 소속된 예술가집단이다. 이들은 매년 자국 전시와 함께 해외전시 기획하고 있으며 자체 갤러리도 운영중이다.

전시가 열리고 있는 씨떼 데자르(1965년 개관)는 32개 스튜디오를 갖춘 전세계 최대 규모 레지던시로 매년 90개국 1200명의

아티스트가 머물다 가는 공간이다, 이날 개막식에는 끌로딘 루와젤 씨떼 데자르 부원장, 박재범 주불 한국문화원장, 현지 예술인, 재불한국문화예술인 등 100여명이 참여해 전시를 축하했다.

행사에서는 또 그림을 보고 영감을 얻어 작곡한 창작곡을 연주하는 '2018 화음 프로젝트 페스티벌' 오프닝 행사가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다. 한대삼 씨가 김단비 작가의 '별유천지'를 접하고 작곡한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별구름'을 파리국립교향악단 단원인 피에르 프란시스 뒤포(첼로) 등이 연주했다.

조진호 관장은 "광주 미술과 프랑스 현지 작가들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이번 전시가 현대 미술의 네트워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두 도시의 미술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장을 찾은 프랑스 작가들과 관람객들은 광주 작가들의 작품에 흥미를 보이며 질문을 하는 등 관심을 나타냈다.

한국미술에 조예가 깊은 인물로 프랑스 작가 섭외를 맡은 평론가 겸 큐레이터 장루이 뷔아프랑은 "광주 작가들의 전시작은 전통적인 것에서 출발해 현대적 의미로 발전시켜나가는 긴장감과 의욕이 보이는 작품들이 많아 인상적이었다"고 평했다.

파리 시민 피에르 마티유씨는 "한국작

품은 처음 접하는데 볼륨감을 통해 더욱 다양한 색깔을 표현한 풍경작품(양나희)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또 교포 전희준씨는 자신이 살았던 화정동 풍경을 그대로 담아낸 정선휘 작가의 작품을 본 후 작가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참여작가들의 반응도 다채로웠다. 2만 컷의 스크린 샷으로 구성된 비디오 작품을 통해 '경계'에 대한 질문을 던진 데니스 베르니에르 작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의 모습을 그려낸 광주 작가들의 작품이 인상적이라 내 작업의 영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쾌한 스토리가 담긴 설치미술을 선보인 타니 그라스 작가는 "이야기가 있는 오브제를 활용해 친구들의 만찬 모습을 설치 작품으로 표현했다"고 작품을 설명한 뒤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 느낌을 같이 만날 수 있는 흥미로운 전시"라고 말했다.

개막식 후에는 바스티유의 한 식당에서 만찬이 열렸으며 21일에는 현지 작가 작업실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옛 목공예 공방을 50여개 아틀리에로 변신시킨 바스티유 '37bis.net'을 찾은 작가들은 2007년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했던 설치미술 작가 크리스티안 블랑의 작업실을 방문, 대화를 나눴다.

/프랑스 파리=김미은기자 mekim@

## 7인의 7색 봄

'아트 레인보우'

회원전

5월 3일까지

갤러리 봄



▶문희진 작 '봄별'

그림 '아트 레인보우'가 5월 3일까지 갤러리 봄(광주시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에서 '봄'을 주제로 단체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문희진, 이재남, 정정숙, 모지형, 손현주, 이승기, 김해란 등 작가 7명이 참여해 봄을 소재로 하는 회화작품을 선보인다.

7명의 작가로 구성된 '아트 레인보우'는 이름처럼 저마다 개성있는 색깔과 기법으로 봄을 형상화한다.

김해란 작가는 초록빛 배경에 봄꽃으로 장식한 풍경을 화폭에 담았다.

이재남 작가는 노란 산수유가 흐드러진 시골풍경을 선사한다. 모지형 작가의

'호이안의 오후'는 한가로움 봄의 정취가 풍기는 베트남의 작은 도시를 그렸다.

문희진 작가는 봄별이 가득한 방안의 풍경을 소재로 삼았으며, 손현주 작가는 소반에 담긴 사과와 모듬을 '사과소묘'로 형상화했다.

이승기 작가의 '가족나들이'는 딸찍이 떨어진 산을 바라보는 가족의 모습에서 봄의 정취와 가족의 따스로운 품을 느낄 수 있다. 불그스름한 '사과꽃'을 화폭에 담은 정정숙 작가의 그림에선 화사한 봄기운이 가득하다. 문의 010-9866-076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인형극 '달래이야기' 스크린으로 만난다



## 26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인형극 '달래이야기'를 스크린으로 본다. 한국적인 정서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웰메이드 인형극 '달래이야기' (사진)가 예술의 전당 스크린 콘서트로 광주시민들에게 선보인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SAC ON SCREEN(씩 온 스크린)'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인형극 '달래이야기'를 상영한다.

극단 예술무대 산이 창작한 '달래이야기'는 2009년 스페인 티테리자이 세계인형극제 최고 작품상과 2012년 중국 세계인형극총회 최고 작품상을 수상했다.

2016년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한국 대표인형극으로 선정됐을 뿐 아니라 20개국 81개 도시에서 초청공연했다.

'달래이야기'는 달래네 세 식구 이야기로 가족에게 닮은 한국전쟁의 아픔을 동화와 같은 판타지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배우와 인형이 함께 등장하여 연기하는 독특한 형태에 오브제·연극·마임·3D 영상 등 다양한 매체가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다음 상영작은 5월 10일(오후 7시 30분) 디토 10주년 갈라 콘서트 '디토 파라 디토'를 선보일 계획이다. 입장권 가격은 무료(선착순 100명)이며 전화(062-670-7942) 예약이 가능하다. 5세 이상 관람. /박성천기자 skypark@

## "전통과 현대적 요소 어우러진 광주 작가들 작품 매우 흥미로워"

### 교류전 주관 '르 제니 드 라 바스티' 다니엘 루와젤 회장

"이번 전시를 인연 삼아 광주 지역 미술가, 단체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갤러리에서 다양한 전시도 열 수 있을 겁니다. 광주에서도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구요."

광주시립미술관이 주관한 '문화도시 광주'전 '바람이 분다'에 참여한 '르 제니 드 라 바스티' 다니엘 루와젤 회장은 "교류전을 준비

하는 건 흥미로웠고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1984년 결성 후 현재 90여명의 예술가가 활동중인 협회는 3년전부터 파리 11구청의 지원을 받아 바스티유 변화가에 자체 갤러리 '제니 드 라 바스티'를 운영중이다.

21일 방문한 갤러리에서는 파리, 벨기에, 일본 작가 8명이 참여한 'LINK OF INK'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문화 교류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게 작가들의 작업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광주 작가의 작품들은 전통과 현대적 요소가 어우러져 흥미로웠습니다."

지난 2002년 서울 작가들과 교류하고 마니프에 참여하기도 했던 '르 제니 드 라 바스티'는 최근에는 도쿄, 샌프란시스코, 칠레 등과 교류전을 진행하는 등 파리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제 63회 호남예술제

예술 꿈나무들이 큰잔치!



2018. 4.19 목 - 5.29 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부대학교, 광주패밀리랜드 및 우치동물원



## 전통의 종합예술대전 전국대회

신청기간: 2018. 5.14(월) - 5.16(수)

참가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경연기간: 4월 19일(목)~5월 29일(화)

참가부문: 음악·무용·국악·미술·작문(자세한 내용은 대회요강 참조)

접수방법: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062-220-0541)

방문신청: 평일 09:00~18:00(토·일요일 제외)

우편신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사 16층

호남예술제 담당자 앞(우61482)

인터넷 신청: http://art.kjmedia.co.kr(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경연일정: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

확정된 일정 및 장소는 2018년 4월 16일(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

시상: 우수학교상·우수지도상(예정)

개인: 최고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

단체: 최고상·금상·은상·동상·장려상

문의: 062-220-0541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